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제1독서: 집회3, 2-6 12-14

제2독서: 골로3, 12-21

복 음: 루가2, 41-52

순정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루가2, 51).

강론

“가정과 행복”

오 현택 신부 / 무주 천주교회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가정생활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성가정 축일임과 동시에 1991년 마지막 주일이며 인류구원이 예수 성탄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신앙적으로는 첫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동체입니다. 천지창조 이래 그 누구도 가정을 떠나서는 인생문제를 생각해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다시 가정을 이룩하며 마지막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맞는 것도 가정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거룩한 가정으로써 모든 가정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 50% 가까이 주부들이 가출하며 가정 해체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비행과 여성 범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4, 17참조).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되고 희생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표현될 때 자녀들은 그 사랑을 본받게 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효심도 생길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또한 다름과 불화로 미움이 가득한 부모의 관계를 자녀들이 보고 성장한다면 어떻게 효자 효녀를, 맑고 깨끗한 자녀를 그 가정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각자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우리 가정은 올 한해 동안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며 일치하여 성가정처럼 겹손되어 서로 희생 봉사하였습니까? 우리 모두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 가정에서 찾읍시다.

끝으로 신년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구박하거나 희망을 꺾지 말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간택된 사랑받는 성도들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도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은유와 인내로 서로 돕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골로 3, 12-21참조).

소리

“속임과 믿음”

한 사회가 사람 살 만한가 하는 것은 믿음이 통용되는가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믿음이 인간존중의 세태와 깊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지금 믿음을 다지려고 애쓰는 도정에 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어디서나 믿고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선거로 새역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계만이 마지막 믿음 보존의 아슬아슬한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기복신앙의 분위기가 깊어지면 자체 내에서 부패해가기가 쉬울 것이다.

학교사회에도 신뢰가 공공연히 의심받고 있고 보면 사회 전체가 유기체처럼 얽힌 공동체적 운명에 있음을 새삼 깨달으며 놀라게 된다.

굳이 정치가들의 불신임 사례를 들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너무 믿음없이 살고 있다.

속고 속임이 죽고 죽임과 다를 바 없다. 저 사람을 속이는 마음은 저 사람을 나 아끼듯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화는 그리스도교의 인간존중 사조가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타하기 전에 현상을 맞서 싸우는 실천의 중대함을 느끼기부터 해야 한다.

삶은 싸움이라는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체득한 우리 사회이지만 그 싸움의 대상이 애매모호한 것이 탈이라면 틀린 말일까?

적은 내 안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는 내 밖의 적을 대적하는 이중의 싸움을 새해에는 벌여볼까? ☐

순정이 산책



당신의 점수는?

“1992년도 사목교서”

존경하을 신부님들, 수도자들,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1992년에 들어서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진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교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지난해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내놓았던 사목교서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적 사회풍조, 개인주의, 이기주의, 급속도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 농산물 수입 등의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빠지게 된 절망 상태, 소외되어가는 노인들, 청소년문제, 공해문제, 방향감각을 상실해가는 종교 일반의 흐름 등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고 좀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개인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본당, 교구, 전국 교회, 세계 교회 등 점점 더 넓은 테두리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그것을 실현하자는 것. 둘째,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갖자는 것. 셋째,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것. 넷째, 함께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함께 추구했던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들이 지난 한해 동안 어떻게 달라졌으며,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무관심이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잘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현성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서는 어디서나 ‘살아 있고 힘이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 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냄으로써”(히브 4, 12 참조) 인간적 기교나 웅변 혹은 도덕적 설교가 성취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신앙인 각자와 교회의 얼굴을 일신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일어나서 개인과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변화되는가? 그것은 “성서를 통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까지 내려오시어 다정히 말씀해주시기”(계시현장 21항) 때문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신앙인들이 빠짐없이 성서 묵상을 통해 주님과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서 생명의 빵과 음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각도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겠지만, 교구민 전체를 위해서 우선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1. 가정마다 가장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주님을 모시듯이 성서를 안치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듭시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 대한 존경에 버금가는 존경을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신 주님께도 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계시현장 26항).

2. 성서를 대할 때마다 항상 합당한 존경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전례에서 성서 봉독의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에 중요한 몫을 담당한 것인 만큼 미리 읽고 발음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듣는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3. 아침이나 저녁에 가족이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각자가 묵상한 바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4.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서를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생각하여(계시현장 25항) 성서 봉독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5. 성서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엉뚱한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서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성서교실, 통신성서, 특별강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소한 성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편찬된 좋은 책을 선택하여 참고합시다.

6. 누구에게 선물할 기회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성서를 선택합시다.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종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성당 옆) ☎ 77-5997

우리편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기리인)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옆)
☎ 85-884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당전화 75-0550

잡간

“제야(除夜)의 노래”

대지를 품다 못해 검붉은 잿빛으로 변한 먼 들녘을 바라보노라면 어느 새 금빛 찬란한 님의 소리와 함께 큰 희망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가는 세월 아쉽지만 구토나는 일, 슬픈 일, 부끄러웠던 일들은 망각의 세계로 돌려 보내고 기쁜 일, 아름다운 일, 값된 일들은 고이 가꿀 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의 제야의 시를 읊어 본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 데
 낡은 것을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울려라 즐거운 종소리여, 눈 세계를 넘어서
 해가 가려 한다, 가는 해를 가게 하라.
 거짓 것을 울려 보내고 참된 것을 맞아들이자.
 종소리 크게 울려 묵은 것을 보내자.
 궁핍과 걱정과 죄를 울려 보내자.
 시대의 싸늘한 무신앙도 함께 나의 구슬픈 노래를 울려 보내고
 좀더 풍만한 울개를 울려들이자.
 더러운 부패의 낡은 형식을 울려 보내고
 황금에 대한 편협한 탐욕을 울려 보내자.
 예로부터의 천 번의 전쟁을 울려 보내고
 천년의 평화를 맞아들이자.
 용감하고 자유한 사람을 맞아들이자.
 보다 크나큰 마음, 보다 친절한 손을,
 지상의 암흑을 울려 보내고 장차 올 빛을 맞아들이자.

교 구 소 식

1. 교구청 중무식: 12월31일(화)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2. 교구청 시무식: 1월3일(금)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3. 신년 하례식: 1월2일(목)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대강당.
4.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수)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집전-이병호 주교.
5. 제8차 전주 선택: 1월24일~26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대상-젊은 미혼 남녀, 회비-30,000원, 접수-교육국(선착순).
6. 선택의 날: 1월25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7.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1월9일(목) 10시~13시 덕진 성당, 강사-강인찬 신부.
8. M.E. 제37차 주말: 1월3일~5일 나바위 대건 교육관.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1월5일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 2층(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1월5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1월5일 오후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0652)212-323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편물, 광고물의 지나친 발송 중지!

우편물, 광고물의 홍수는 자연환경에 이증, 삼중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발송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 중에서 필요없는 것은 보내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 (충편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초간, 송악국 시거리

우전옥 횃집(효자동)

활어회·각종 회 전문
 실비 봉사
김 태 웅(베네딕도)
 제일여객 앞골목
 ☎ 224-0588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요십이 (960) 김병오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시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시도회 사무실)

간 호 사 모 집

1. 모집인원: ○ 명
 2. 자격: 미혼여성으로서 신자우선
 3. 구비서류: 자필이력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4. 면접: 1992년 1월 6일
- 문의: 이리성모의원
 전화: (0653)841-0714~5

관인 다예미술학원

* 방학특강 * 92년 원아모집
 크레파스화, 수채화 집중지도
 원장과 아동미술 전공교사 지도
박 경 화(마리아)
 효자동 ☎ 223-8355

삼천 가지 산장

대표 안 승 래
 오 명 래(아녜스)
 완산구 삼천동 국립박물관 옆
 ☎ 223-37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평화의 날(의무축일): 1월 전9시, 전10시30분, 저녁7시미사
 2. 송년 감사 미사: 31일 저녁10시(저녁7시 미사 없음)송년의 밤에 모두 초대합니다.
 3. 반회장 모임: 3일 전10시30분(교무금 봉투 배부)
 4. 사목회 상임위원회: 3일 저녁7시30분
 5. 새사목회 회장단: 회장-노송남(안드레아), 부회장-김동주(유스티노), 박 일진(요한), 정원용(아네스), 총무-최만식(시몬), 감사-박태복(마테오), 장성복(바오로), 교무-김용환(요한), 김정순(막달레나), 저금수(그라씨아), 안관용(루가), 앞으로 수고 하십니다.
 6. 금주청소: 중노2가12,13번 차주청소: 중노2가14,15번
- 지난주 봉헌금: 1,042,320원 □ 교무금: 4,39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 성탄행사에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1. 송년미사: 31일(화) 저녁8시.
 2. 92년 새해미사: 1월1일(수) 새벽6시 오전10:30분 저녁7시.
 3. 사목회: 5일 저녁미사 후, 대전회-5일 공식미사 후.
 4. 성모상 건립 헌금: 문형주, 김순남(각10만원), 장병진, 김옥채(각3만원), 김순호, 이순례(각5만원).
 5. 성당청소(1월4일): 사랑하을 어머니Pr. 순길하신 어머니Pr.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임종길씨 부부 봉헌-이상원씨 가족, 송년미사: 오교성 독서-박상기씨, 새해미사: 황만균 독서-정동민씨 부부 봉헌-나경섭씨 가족 차주전례: 정승훈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신대섭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715,150원 □ 교무금: 2,231,1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오늘은 성가정 대축일입니다.
1. 축! 당신: 사목회장-한동욱 형제님, 부회장-유순천형제님, 이취임식-1월1일 공식미사 중.
 2. 성가정회: 저녁 7시
 3. 성모회: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서읽기: 베드로II서 전체.
 6. 금주청소: 모든성인의 오후Pr
 7. 사목회: 1월4일 저녁미사 후.
 8.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9. 천주의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1일, 의무축일 오전10:30분미사 만 있음.
 10. 감사: 성탄꽃-이정자, 김미남, 박영미
- 지난주 봉헌금: 325,170원 □ 교무금: 76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영 문

- ※ 오늘은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1월5일)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 오후2시, ③자모회-다음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첫회의오니부장, 차장님 전 원참석바랍니다.) 1월1일미사시간 오전10시30분.
 2. 알림: ①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완납바라며 92년도분 미신입하신 분은 신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②교적정리를 위하여 우리본당으로 오신분과 타본당으로 가신분은 전입, 전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 영세: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새로 태어나신 형제자매님 들께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36,350원 □ 교무금: 3,17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송년미사: 1부-송년잔치 오후9시(부부노래경연대회), 2부-송년미사 오후11시.
 2. 새해미사: 1월1일 오전9시, 10시30분.
 3. 중·고생을 위한 성서연수: 1월중 매주토요일 오후4시. (준비: 합본성서, 4월-구약성서, 신약성서형성과정)
 4. 첫영성제 교리: 1월7일 오후2시부터(대상: 3학년이상 어린이)
 5. 구역장·반장모임: 1월3일(금)어머니미사 후(점심제공)(형제반장모임: 4일(토) 오후8시)
 6. 청소봉사: 서관산동2가 구역
- 지난주 봉헌금: 932,030원 □ 교무금: 2,18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영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사목회 정기총회: 오늘공식미사후, 11시, 대상-사목회전임원, 구역반장, 제단제장, 장소-사제관 회합실.
 2. 성가회 임원개편: 전회차-장금태(프란치스코), 신임회장-최병대(안토니오), 성모회 임원개편: 회장-오영숙(비비안나), 총무-조명현(프란치스코), 서기-차분순(데레사).
 3. 1월1일 천주의모친성마리아 대축일미사: 주일미사와 동일, 신자로서의 미사의무를 저칩시다.
 4. 성가정회 정기총회: 30일(월) 오전11시.
 5. 92년도 교무금 신임바랍니다. ※ 91년도교무금완납바람.
 6. 차주: ①1월5일 주의공현 대축일-공식미사(11시)-주교님미사 집전, ②울드레아(공식미사후), ③제축글라라행제회(오후1시30분), ④구역봉사자모임(저녁7시).
- 지난주 봉헌금: 1,758,3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구

- ※ 천주의모친 성마리아 대축일(평화의날): 1일 주일과 동일.
- ※ 92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입니다.
1. 91년도 송년의밤 미사: 31일 후8시. 젊은이들 밤샘 기도.
 2. 사목회, 제단제, 구역반회장 1일피정: 2일 전8시30분 5,000원
 3. 성시간 및 성체강목: 2일 후7시30분, 새해 첫시간입니다.
 4. 사목회 상임위원회: 4일 후7시30분, 제단제장 의무참석.
 5. 농촌 M.E 주일강습회: 3일~5일 고복수, 최완용, 조오형
 6. 정이냐시아 수녀 피정: 4일~13일 많은기도 바랍니다.
 7. 회의: 성심부녀회-어머니미사 후, 꾸리아-5일 후2시30분.
 8. 성탄절행사, 경품, 달력은인,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
 9. 91년도 의무 책임원수: 미진된것 많았기에 정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62,050원 □ 교무금: 2,29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일마누엘이라 하리라”

1. 축회: 오늘미사 후(사목임원, 구역장, 제단제장)
 2. 평화의 날 미사: 1월1일 오전10시30분.
 3. 사목회: 다음 주일미사 후
 4. 송년미사: 31일(화) 오후7시30분.
 5. 금주전례: 정 절 독서·봉헌-이유자·이원길
- 차주전례: 김용무 독서·봉헌: 권미숙·구양수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증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이 동 섭

- ※ 하늘엔 천주께영광, 땅에서는 착한이에게에 평화!
- 감사! 성탄 대축일 행사에 수고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 ◇ 구사목회임원: 지난2년동안수고해감사합니다. ◇ 신사목회임원: 앞으로많은수고를해주시겠습니까(신사목회장이동섭(가브리엘) 축! 예수마리아요셉의성가정축일(오늘) 1. 구역성가경연대회성황 리에마침(참여하신구역에감사합니다) 2. 유아영세: 오늘오후4시(성당) 3. 국교생첫영성제교리: 1월7일~1월18일(1월7일은부모님 과함께오후4시성당으로) 4. 천주의모친성마리아대축일(신정, 세계 평화의날): 미사①11시30분 ②후7시(11시미사후신년평화의날 행 사있습니다) 5. 송년미사: 12월31일(화)밤11시30분 6. 모임안내: ①사목회-금 오후8시(사제관) ②가리따스-금 후3시 ③안나회-다음주11시미사후 ※ 구유조배-1월5일까지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29,010원 □ 교무금: 5,21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요셉회: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신, 구임원 이, 취임식-공식미사 중. 3. 1월(수)성마리아대축일: 10시30, 저녁7시 4. 여성분과회: 3일(금)어머니미사 후 5. 안심공소미사: 3일(금) 6. 송년미사: 31일(화)저녁10시 7. 학생회: 4(토)오후5:00, 성인교리: 15(수)매주 수요일 오전10시, 후7:30분, 주일 오전9시.
- 차주모임: 꾸리아, 사목회
- 신축헌금봉헌액: 1,590,000원
- 축! 혼인성사: 신랑-권순오 신부-박혜정(아네스) 오후1시.
-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송재진 ②한정례
기도①정경수 ②최순영
-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송대식 ②윤길영
기도①채희명 ②장옥선
- 지난주 봉헌금: 1,498,890원 □ 교무금: 5,665,000원